



링컨 대통령 암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그림. 라스본 소령, 클라라, 메리, 링컨 대통령, 암살범 부스(왼쪽부터)



포드극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1865년 4월14일 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포드극장의 대통령 관람석. 당시 비극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포드극장은 후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워싱턴 D.C=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7〉링컨대통령 살해된 포드극장

‘민주주의’ 암살 현장, 民主교육의 場으로

워싱턴 D.C=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1865년 4월14일 밤 8시30분, 에브라함 링컨(1809-1865)과 부인 메리, 헨리 라스본 소령과 약혼녀 클라라 헤리스 등 대통령 일행은 워싱턴 D.C의 포드극장에 도착했다. 이날은 남북전쟁(1861-1865) 항복문서에 서명한 지 5일째가 된 날이었다. 당시 극장에서는 미 최고의 성격배우인 에드윈 부스의 코미디 ‘우리의 미국인 사촌’(Our American Cousin)이 공연되고 있었다. 4년간의 전쟁에서 ‘해방된’ 링컨은 모처럼 수형원들과 연극을 즐기기 위해 극장 2층 맨 오른쪽에 마련된 대통령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같은 날 저녁 6시경, 27살의 연극배우 존 윌크스 부스(John Wilkes Booth·1838-1865) 역시 말을 타고 포드극장을 찾았다. 열렬한 남북지지자였던 그는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하고 며칠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데린저권총과 사냥용 칼을 외투 안에 감추었다. 연극 도중 터져 나오는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총성을 덮어줄 것으로 믿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연극의 3막이 시작된 10시 15분경, 그는 링컨 경호

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통령 관람석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메리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링컨의 귀에 대고 “클라라가 우릴 ‘닭살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숨죽이고 있었던 윌크스는 주연 배우의 긴 대사로 관객들의 웃음이 빵 터지자 링컨의 뒤쪽수를 향해 발아쉬를 당겼다. 짹 짹 라스본 소령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준비한 칼로 찌른 후 라틴어로 “영원한 폭군이야! 남부는 복수했다”고 외치며 무대로 뛰어내렸다. 윌크스는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부러졌지만 미리 극장 뒷문에 세워 놓은 말을 타고 워싱턴 D.C를 빠져나갔다. 의식을 잃은 링컨은 포드 극장 건너편 피터슨 하우스(Peterson’s boarding house)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아침 7시22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나이 56세였다.

워싱턴 D.C 10번가에 위치한 포드극장(Ford’s Theatre)의 시계는 ‘1865년 4월14일 밤 10시15분’에서 멈춰져 있다. 1833년에 세워진 포드극장은 원래 제일침례교회의 예배당으로 쓰였던 곳으로 1861년 당시 극장 재벌이었던 존 포드(John Ford)가 교회목사로 부터 구입하면서 극장으로 변신했다.

‘그날’ 이후 146년이 흘렀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관람석·피묻은 코트·권총 등 ‘그 날’ 생생히 보존

국가 사적지 지정...하루 5천명 방문 글로벌 명소

비극으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의 암살현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극장에 들어서면 1865년 오전 8시부터 암살된 10시15분까지의 시간대별 대통령 동선들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벽면에 기록돼 마치 타임 머신을 탄 듯하다.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후손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연중 붐비는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됐다는 점이다.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다.

암살사건 이후 미 연방 정부는 극장소유자인 존 포드에게 보상금 10만 달러를 건네면서 “앞으로 (이곳을) 영원히 시민들의 위락공간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였다. 포드극장은 한동안 군사기밀들을 보관하는 자료실로 이용되다 1931년 화재사고로 전소되는 아픔

을 겪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국인들은 “신성한 교회를 극장이나 창고로 사용했던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다.

미 연방정부는 1932년 포드극장과 피터슨하우스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암살에 사용됐던 권총과 윌크스의 다이어리, 포드극장의 대통령 관람석 문 등을 모아 극장 지하에 만든 링컨박물관에 보관했다. 이 박물관에는 링컨과 부인의 유품에서부터 암살 당시 그가 입고 있었던 피묻은 코트, 초상화, 동상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피격 직후 옮겨져 이튿날 오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누워있었던 침대와 피묻은 베개는 피터슨 하우스에서 볼 수 있다.

포드극장은 지난 2009년 2월 11일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미 정부가 총 5000만(약 690억

원) 달러를 들여 보수공사를 마친 후 링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인 재개관을 한 것이다. 극장 앞에는 링컨의 정신과 생애를 조명하는 ‘교육 및 리더십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 한 이날 재개관 기념식에서는 링컨의 역정과 고난을 다룬 ‘천국은 어두운 곳에 있다(The Heavens are Hung in Black)’가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포드극장은 텍사스 델러스의 식스 플로어 뮤지엄과 함께 비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일명 ‘6층 기념관’으로 불리는 식스 플로어(The Sixth Floor)는 1963년 11월22일 무개차를 타고 피어리드를 하던 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텍사스 교과서 보관창고의 건물 6층에서 리 하비 오스왈드가 저격했던 장소다. 식스 플로어 뮤지엄은 카우보이의 본거지 정도로만 알려진 델러스를 유적지로 각광받게 하는 일등공신이다.

포드극장과 식스 플로어 뮤지엄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도 알든지 글로벌 관광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 속에서 지우는 대신 기념관으로 부활시켜 후대를 위한 교육의 현장으로 삼은 지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jh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aekdosanak (백두산악) featuring various outdoor gear brands like MOUNTAIN EQUIPMENT, LEKI, OSPREY, TATONKA, mello's w, Lowe alpine, Sprayway, ARC TERYX, Rab, CARO, Mystery Wall, adidas, patagonia, Coleman, snow peak, KOVEA, PRIMALS,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Y, SUUNTO, PETZL, DANA, CAMPLINE, MAGGIE, ASOLO, COGO, LEWA, and Timberlin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les points in Gwangju.

Advertisement for Chilman Paints (칠만표방수제) featuring the slogan 'SINCE 1988' and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It promotes waterproofing services for roofs, basements, and parking lots, with a 100% satisfaction guarantee. Includes contact numbers for branches in Gwangju, Jeonnam, and Jeonju.